



가금수급안정 사업 대정부 건의문

◆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오리분야 사업추진 현황

- ▶ '03년 이전까지 오리분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미약하였고 지원사업도 없었음
- ▶ '03년 하반기부터 양계 수급안정 사업에 오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 ▶ '04년도 위원회 명칭을 가금수급안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사업지원시작
- ▶ '04년도 소비촉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이후 '05년도 해외시장조사 및 연구 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가금수급안정 사업의 오리분야 성과

- ▶ 2003년 12월 13일 충북음성 박덕규 농가에서 고병원성(H5N1) 발생으로 인하여 위축된 오리고기 소비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 (H5N1, H5N2, H4N2, H7N1, H9N2)
 - '04년도 오리고기 요리52선 요리책 발간을 통해 오리고기 소비기반 확대에 기여
 - '04년부터 수차에 걸친 소비촉진 행사 추진 및 '05년도 소비촉진 사업을 펼쳐 소비 확대에 의한 가격안정에 기여
 - '04년 종오리 수매, 종란폐기, 육용오리 수매 등 수급조절 기능 역할을 함
- ▶ 오리고기 주요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에 기여
 - '05년도 주요 오리고기 수출국인 중국과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오리산업 및 오리고기 수입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강구
 - 오리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을 통해 오리고기 수출확대에 기여
- ▶ 오리고기의 효능 등 연구사업을 통하여 소비확대 과학적인 근거마련

- 오리고기의 항암적인 효능 등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기능성 육류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확대 방안 강구

▶ 정부의 오리분야 수급안정 사업 추진으로 오리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생업종사의 희망과 자긍심을 크게 심어 줌

- '91년 수입자유화 이후 정책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가 정부의 가금수급안정사업의 추진으로 오리업계 종사자는 생업유지의 큰 힘이 되고 있음

◆ 가금수급안정 사업 중단 시 문제점

▶ 오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지연

- 오리산업의 구조적인 여건과 업계 종사자의 열악한 경영여건상 지구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생산관련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정부의 가금수급안정 사업의 추진중단은 오리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포기로 이어져 질적 성장이 지난한 문제에 봉착

▶ 오리고기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부재로 수급안정 지남

-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오리생산관련 종자오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종자오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가금수급안정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업계의 열악한 경영적 현실에서 자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임

▶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의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 지남

- '03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가금수급안정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정상화에 기여- 가금 수급안정 사업 부재 시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실천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어 산업의 조기 정상화에 차질



- ▶ 2005년 10월 3일 WTO에서 고병원성(H5N1) 발생시 전 세계 인구 중 약 1억 5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보도 후 가금분야는 항상 위태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가금수급위의 TV홍보, 라디오홍보 등 지대한 효과를 얻는 광고사업을 함 (닭고기, 오리 고기 배상보험금 20억원 제도)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TV 및 라디오 등 외신 1회 보도시 닭·오리 매출은 5%씩 저하되어 가금류 업계의 분개 및 도산 위험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사업을 하고 있음

◆ **가금수급안정 사업관련 건의사항**

- ▶ 정부의 가금수급안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장벽 없는 자유시장 경쟁체제하에서의 오리 산업의 발전 및 안정화 대책 추진
- ▶ 오리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조금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까지 종전대로 가금수급안정사업 전개
 -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07년까지 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여 '08년부터 임의자조금 사업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업계 참여도 성숙에 맞춰 의무자조금 도입
 - 업계의 자율적인 자조활동자금 사업 시행이전까지는 종전대로 가금수급안정사업을 전개하여 경쟁력 및 안정화 대책 시행
- ▶ 종오리 D/B 사업 추진 등 오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지원
 - 종오리 사업 GPS, PS, CC
 - 종오리장 (축사)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획안
 - 육용오리 (축사)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획안
 - 부화장 현대화사업 기획안
 - 과잉생산방지 및 수급조절기능
 - 1차, 2차 가공품 수출사업 확대
 - 도압 및 가공장 HACCP 의무화 추진안 등

(사)한국오리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사) 한국오리협회가 2006년 3월 11일(토)자로 아래와 같이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5개 축산단체가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에 제2축산회관을 마련하였고, 오리협회가 동건물 5층에 입주하였습니다. 국내 오리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이 전 일 : 2006. 3. 11(토)
- ◆ 이전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5층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1번출구 1분거리)
- ◆ 전화번호 : 02)585-5286~7
02)582-5288
- ◆ 팩스번호 : 02)597-5249
- ◆ E-mail : k-ducka@hotmail.com
- ◆ 사무실 약도

